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과 학업수행능력과의 연관성 탐색*

이상은¹⁾ 편지애²⁾ 최나아³⁾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잠재집단 예측력 및 잠재집단 간 학업성취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8-10차년도 자료의 부모-자녀 496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은 다섯 집단('하위유지집단', '중위유지집단', '상승후감소집단', '급상승집단', '급감소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어머니가 책을 자주 읽어줄수록 '하위유지집단' 보다 '중위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어머니의 빈번한 문해지도는 '하위유지집단', '중위유지집단' 및 '급감소집단' 보다 '급상승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였다. 넷째, 초등학교 3학년의 학업수행능력은 '하위유지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아동의 긍정적인 독서시간 변화를 위한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중요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독서시간,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 학업수행능력

I. 서론

독서는 아동이 지식을 확장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부모와 소통하는 한 방법이다. 아동의 독서는 사회성, 창의성, 학업수행능력 발달뿐만 아니라, 자아개념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인적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박혜숙, 2008; 송정숙·한승록, 2007; 오재민, 2014; 이선숙·김형균, 2020; 장근영·김기현, 2009).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2021)가 발

* 이 논문은 제14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초·중·고 학생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약 6.6권, 독서율은 약 0.7%p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의 독서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초등학생의 독서 특성을 파악하여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저학년 시기의 독서는 이후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공식적으로 국어 교육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독서를 학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김진숙, 2008). 또한 아동은 저학년 시기에 기본적인 읽기 기술을 습득하며, 이후 습득한 읽기 기술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학습한다(이유진, 2021; Chall 1983). 이 시기는 언어뿐 아니라 인지적·학업적 능력도 크게 발달하는데, 아동의 독서 습관과 독서시간은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정수정·최나야, 2012; Bojczyk, Davis, & Lana., 2016; Steensel, Gouw, Liefers et al., 2022), 학습수행능력(박혜숙, 2008; 안영미·정익중, 2020)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독서 관련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아동의 문해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권태민·전유영, 2014; 최지수·최나야, 2022), 초등저학년 자녀와 부모 간 문해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시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독서시간을 비롯한 아동의 활동 시간은 해당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며(하문선, 2017), 아동의 인지, 정서 및 신체 영역 등 성장 및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Huebner & Mancini, 2003).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독서시간이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주의집중 부족 등의 정서행동문제(장근영·김기현, 2009; 하문선, 2017), 집행기능 곤란(편지애·최나야, 2022)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이진혁·송인한, 2021)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독서시간 관련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나, 관련 선행연구로 안영미와 정익중(2020)은 초등학생의 사교육 시간과 독서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아동의 독서시간은 장기적으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혜숙(2008)의 연구에서는 독서시간이 아동의 국어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발달단계별로 독서시간의 영향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시기별 독서시간에 대한 패턴을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아동의 독서시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컨대, 이순영(2021)과 하문선(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독서시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감소하는 패턴 내에서도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 여부는 밝히지 못

한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독서에 대한 흥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Hume, Lonigan, & McQueen, 2015),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박혜숙, 2008; 안영미·정익중, 2020; 오재민, 2014; 장근영·김기현, 2009; García-Madruga, Vila, Gómez-Veiga et al., 2014). 장근영과 김기현(2009)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유형화하여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주중에는 학교공부에 집중하면서도 주말에는 독서를 즐기는 이른바 '개인공부족'의 학업성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재민(2014)의 연구에서는 특정 분야의 독서 선호와 관련 과목 학업성취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김경근과 변수용(2007)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 활동의 효과가 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의 선행연구들(박혜숙, 2008; 안영미·정익중, 2020; 오재민, 2014; 장근영·김기현, 2009)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와 학업능력 간의 정적 관계를 설명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중에서도 독서 동기가 높고(정수정·최나야, 2017), 학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3학년을 포함한 초등저학년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독서 시간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은 언어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정수정·최나야, 2012), 부모는 자녀 스스로 책을 읽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문해 상호작용이 나빠지는 양상을 보인다(전춘애·최정희·황미경, 2010). 그러나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은 아동의 독서 습관 형성에 절대적인 요소로 초등학교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정수정·최나야, 2012; Bojczyk, Davis, & Lana., 2016).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이란 가정에서 자녀와의 문해 활동 중 부모가 제공하는 지원과 격려 및 모델링을 의미하며(Bojczyk, Davis, & Lana, 2016),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두 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Sénéchal & LeFevre, 2002). 첫째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문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 2-5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Phillips와 Lonigan(2009)은 가정문해환경을 부모 자녀 간 함께 책읽기와 직접적 문해기술이 모두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집단, 함께 책읽기 정도는 낮지만 직접적 문해기술은 활발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Hume, Lonigan과 McQueen(2015)은 문해 상호작용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는 활동이 자녀에게 명시적으로 문해기술을 지도하는 것보다 유아의 읽기 흥미 측면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

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독서 흥미가 달라지며, 아동의 독서 흥미가 독서시간 및 독서량과 정적 상관에 있음(김현정·이태상, 2010)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독서시간을 비롯한 독서 행위가 달라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해 상호작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송하나·최경숙, 2010; 육길나·김숙령, 2009),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권태민·전유영, 2014; 신승희·김명희·홍순옥, 2020), 부모를 포괄하여 살펴본 연구(이문정, 2008)는 사실상 드물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 문해 상호작용의 일반적 특성은 상이하며(권태민·전유영, 2014; 정행선·조희숙, 2012), 아동 역시 부모의 성별에 따라 문해 상호작용에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Cutler, 2023; Pruett, 2000; Steensel, Gouw, Liefers et al., 2022). 따라서 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권태민·전유영, 2014; Cutler, 2023) 부모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각각이 자녀와 갖는 문해 상호작용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독서시간 변화 양상에 따라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존재함을 밝히고,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와 관련해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독서시간 변화 양상에 따라, 학업성취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Hernandez, 2011)의 학업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독서시간 변화 유형과 학업수행능력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에 어떠한 잠재유형이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대한 초등학교 1학년 시기 부모의 문해 상호작용은 관련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자료(8차년도-10차년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시

간 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3개 연도(2015년-201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개 시점 중 독서시간을 묻는 문항에 모두 응답한 자료로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496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1차년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아동의 성별은 고르게 분포하였으며(남아, 51.2%), 대다수 아동이 대도시(40.1%)와 중소도시(41.3%)에 거주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 특징을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은 30대(70%)와 40대(28.4%)가 대다수였고, 어머니 학력은 4년제 이상 대졸(39.1%)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28.8%), 고졸 이하(27.9%), 대학원 이상(4.0%) 순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대졸(40.9%)이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27.6%), 전문대졸(20.6%), 대학원 이상(9.3%) 순이었다. 아버지 연령 또한 30대(45.0%)와 40대(51.0%)가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 399만원 미만(25.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0만원 이상(23.6%)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496)	
	항목	N	(%)
아동 성별	남아	254	51.2
	여아	242	48.8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99	40.1
	중소도시	205	41.3
	읍/면	92	18.5
거주지역	서울권	51	10.3
	경인권	111	22.4
	대전/충청/강원권	76	15.3
	대구/경북권	57	11.5
	부산/울산/경남권	103	20.8
	광주/전라권	98	19.7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8	27.9
	전문대 졸업	143	28.8
	대학교 졸업	194	39.1
	대학원 이상	20	4.0
	기타	1	0.2
어머니 연령	20대	6	1.2
	30대	347	70.0
	40대	141	28.4

항목	N	(%)	
	50대	1	0.2
	기타	1	0.2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7	27.6
	전문대 졸업	102	20.6
	대학교 졸업	203	40.9
	대학원 이상	46	9.3
	기타	8	1.6
아버지 연령	20대	1	0.2
	30대	223	45.0
	40대	253	51.0
	50대	11	2.2
	기타	8	1.6
가구소득 (월 평균)	300만원 미만	52	10.4
	300~399만원	126	25.4
	400~499만원	107	21.6
	500~599만원	94	19.0
	600만원 이상	117	23.6

2. 연구변수

가. 독서시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한국 아동 패널 연구의 8차년도부터 10차년도 주중과 주말 독서시간을 사용하였다. 주중 독서시간의 다섯 배와 주말 독서시간의 두 배를 더하여 일주일의 독서시간을 계산한 후, 7로 나누어 아동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을 산출하였다.

나.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

선행연구를 토대로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요인은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 중 연구진이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2문항을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2문항은 "아이와 [함께] 읽기, 쓰기와 숫자를 익힌다"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해 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1학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아버지-자녀와 어머니-자녀 문해 상호작용 문항을 모두 포함하였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하지 않음 [1점]~매일함 [4점])로 측정되었다.

다. 학업수행능력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은 이은혜·김명순·전혜정 외(2008)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아동의 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수행능력은 교사의 보고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어, 수학, 전반적인 학업수행능력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학업수행능력은 3문항으로, 아동의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수학 학업수행능력은 총 4문항으로, 아동의 연산능력(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과 도형과 측정(시간, 길이, 둘레, 무게)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학업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점수화 방식은 5점 Likert 척도(하위 20% 이내 [1점]~상위 20% 이내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국어 학업수행과 수학 학업수행의 Cronbach's α 는 .93과 .97이다.

3. 분석방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계층 성장분석(LCGA)을 사용하여 잠재계층을 탐색하였다(연구문제 1).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M-plus 8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연구문제 2). 부모의 학력(서우석, 2007; 송유진, 2013)과 가구소득(김영식·김민석·이길재, 2019; 서우석, 2007)은 아동의 독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변인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이를 통제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잠재집단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3).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일원배치 변량분석은 SPS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인 아동의 독서시간,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 및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의 최소값, 최대값과 더불어 평균값(M) 및 표준편차(SD)를 통하여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살펴보았으며,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아동의 독서시간은 1학년은 0.76시간($SD = .51$), 2학년은 0.73시간($SD = .50$), 3학년은 0.70시간($SD = .44$)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이 3학년 때 측정한 학업수행능력의 평균은 4점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학 학업수행능력은 평균 4.32점($SD = .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어 학업수행능력이 4.32점($SD = .93$), 전반적 학업수행능력이 4.30점($SD = .98$)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자녀 간 문해활동은 평균 2점대에 분포하였으며, 아버지-자녀 문해활동은 평균 1점대에 분포하였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주 책을 읽어주었으며($M = 2.33$, $SD = .93$), 문해 지도도 자주 하였으나($M = 2.62$, $SD = .83$), 아버지는 자녀에게 거의 책을 읽어주지 않았으며($M = 1.69$, $SD = .73$), 문해 지도도 자주 하는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M = 1.79$, $SD = .70$).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은 모두 왜도 ± 3 미만, 첨도 ±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상 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05).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N = 496$)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서시간						
1학년 독서시간	0.00	3.57	0.76	.51	1.55	5.39
2학년 독서시간	0.00	4.00	0.73	.50	1.59	5.83
3학년 독서시간	0.00	2.57	0.70	.44	.85	1.40
학업수행능력						
국어 학업수행능력	1.00	5.00	4.32	.93	-1.69	2.58
수학 학업수행능력	1.00	5.00	4.40	.93	-1.91	3.35
전반적 학업수행능력	1.00	5.00	4.30	.98	-1.61	2.30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자녀 문해상호작용						
모 책 읽어주기	1.00	4.00	2.33	.93	.33	-.72
모 문해 지도	1.00	4.00	2.62	.83	.06	-.65
부 책 읽어주기	1.00	4.00	1.69	.73	.85	.39
부 문해 지도	1.00	4.00	1.79	.70	.50	-.13

2.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 결과

본 연구는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집단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의 수를 2개부터 6개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며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잠재집단의 수가 많아질수록 정보준거지수인 BIC, 그리고 SABIC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선 모형과 현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LMR 검정 결과 3개 집단에서 유일하게 유의하였다. 그러나 BLRT와 LMR 값의 결론이 상이한 경우, BLRT값을 따르는 것이 추천되며(Nylund, Asparouhow, & Muthén, 2007), 집단 분류의 최소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모형을 채택(Nooner, Litrownik, Thompson et al., 2010)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5개로 유형화된 잠재집단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잠재계층 성장분석으로 도출된 5개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잠재집단을 명명하기 위해 집단별 독서시간 평균 추정치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대한 잠재집단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3>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N = 496)

모형	BIC	saBIC	LMR	BLRT	잠재집단 분류율 %					
					1	2	3	4	5	6
2-group	1960.262	1928.522	.28	.00	89.7	10.3				
3-group	1897.977	1853.541	.04	.00	87.7	1.8	10.4			
4-group	1858.941	1801.808	.11	.00	81.1	2.0	14.5	2.0		
5-group	1845.605	1775.776	.08	.00	25.3	67.8	2.3	2.1	2.5	
6-group	1841.897	1759.372	.09	.00	67.7	24.8	3.2	2.0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 = Lo-Mendell-Rubin test; BLRT = Board Level Reliability Testing.

잠재집단 유형	n(%)	1학년 독서시간	2학년 독서시간	3학년 독서시간
		M(SD)	M(SD)	M(SD)
4. 급감소집단 ^d	9 (2.1%)	2.82(.54)	1.21(.65)	.83(.43)
5. 상승후감소집단 ^e	13 (2.5%)	.98(.43)	2.45(.63)	1.16(.34)
	<i>F</i>	61.23***	130.12***	216.44***
	Post-Hoc(Duncan)	b < a,c,e < d	b < a,c,d < e	b < d < a,e < c

* $p < .05$. ** $p < .01$.

3. 독서시간 변화 유형을 예측하는 부모의 문해 상호작용

잠재계층 성장분석에 따라 5집단으로 분류된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대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의 문해 상호작용이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동 성별, 부모 학력, 가구소득)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711.21$ ($df = 20$, $p < .05$), Pseudo R^2 (Nagelkerke) = .093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준거집단으로 '중위유지집단'(집단1)으로 설정하여,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이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집단2)에 속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책 읽어주기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B = -.31$, $p < .05$).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책을 자주 읽어주지 않을수록 '하위유지집단'(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유지집단'(집단 1)에 비해 '급상승집단'(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문해지도가 증가할수록 '급상승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B = 1.36$, $p < .05$). 또한 '중위유지집단'(집단 1)과 '급감소집단'(집단 4)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책 읽어주기 시간이 늘어날수록 '급감소집단'(집단 4)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B = 1.30$, $p < .05$). 즉,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 아동의 초기 독서시간은 높았지만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준거집단을 '하위유지집단'(집단2)를 설정하며,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문해지도가 늘어날수록 '급상승집단'(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B = 1.10$, $p < .05$). 즉,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문해지도 시간이 증가할수록 독서시간이 많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준거집단을 '급상승집단'(집단 3)으로 설정하며, 비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책 읽어주기와 어머니의 문해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B = 2.12$, $p < .05$), 어머니가 가정에서

문해 지도를 빈번히 하지 않을수록($B = -1.42, p < .05$) '급상승집단'(집단 3)보다 '급감소 집단'(집단 4)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4.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른 학업수행능력 비교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라 아동의 초등학교 3학년 학업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변량분석 분석과 함께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진행하였고, 등분산인 경우 Ryan-Einot-Gabriel-Welsch F 를, 등분산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Games-Howell을 사용해 사후검정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능력은 등분산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Games-Howell을 사용하였다. 국어 학업수행능력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2.40, p < .05$), '하위유지집단'($M = 4.25, SD = .97$)의 국어 학업수행능력이 '급상승집단'($M = 4.77, SD = .47$) 및 '상승후감소집단'($M = 4.72, SD = .4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수학 학업수행능력에서도 '하위유지집단'($M = 4.32, SD = .97$)이 '급상승집단'($M = 4.89, SD = .38$)과 '상승후감소집단'($M = 4.79, SD = .38$)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F = 2.66, p < .05$).

마지막으로 전반적 학업수행능력은 등분산가정이 충족되어 Ryan - Einot - Gabriel - Welsch F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하위유지집단’($M = 4.21$, $SD = 1.01$)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 학업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2.86$, $p < .05$).

〈표 6〉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학업수행능력 비교

(N = 496)

잠재집단 유형	n(%)	국어	수학	전반적
		학업수행능력	학업수행능력	학업수행능력
		M(SD)	M(SD)	M(SD)
1. 중위유지집단 ^a	113(25.3%)	4.45(.86)	4.55(.86)	4.44(.96)
2. 하위유지집단 ^b	350(67.8%)	4.25(.97)	4.32(.97)	4.21(1.01)
3. 급상승집단 ^c	11(2.3%)	4.76(.47)	4.89(.34)	4.82(.40)
4. 급감소집단 ^d	9(2.1%)	4.48(.50)	4.36(.49)	4.44(.73)
5. 상승후감소집단 ^e	13(2.5%)	4.72(.45)	4.79(.38)	4.77(.44)
	<i>F</i>	2.40*	2.66*	2.86*
	Post-Hoc	b < c, b < e	b < c, b < e	b < a, c, d, e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의 유형을 확인하고, 독서시간의 변화 유형에 대한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한 ‘한국아동패널’ 8-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9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시간 변화 잠재집단은 ‘하위유지집단’, ‘중위유지집단’, ‘급상승집단’, ‘급감소집단’, ‘상승후감소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독서시간이 적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하위유지집단’(67.8%)과 중간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는 ‘중위유지집단’(25.3%)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초등학교 대다수는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 미만으로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와 일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독서시간이 적었지만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급상승집단’(2.3%)과 그와 반대 양상을 보이는 ‘급감소집단’(2.1%), 그리고 독서시간 ‘상승후감소집단’(2.5%) 또한 도출되었다. 이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독서시간의 변화가 ‘증가’, ‘감소’, ‘변함없음’으로 분포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2021)의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전 선행연구와 비교해 독서시간 변화에 대한 세밀한 유형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시간은 모든 학년에서 평균적으로 약 0.7시간(약 42분)으로, 학년 내의 편차를 고려할 때 저학년 시기 동안 독서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아동이 약 90% 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 이용시간은 증가하고 있으며(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2. 1.), 미디어에 과의존하는 학생의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여성가족부, 2023. 5. 26.), 미디어 이용시간과 독서시간 간의 부적의 관계(김아란·남민지·최영은, 2021; 하여진, 2023)를 고려해 학령기 초기에 미디어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서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하여진, 2023).

둘째,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책 읽어주기가 빈번할수록 독서시간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중간 수준에서 유지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주 책을 읽어줄수록,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독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문해지도의 빈도가 높을수록 ‘하위유지집단’ 및 ‘중간유지집단’ 보다 ‘급상승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대로 어머니의 자녀 문해지도 빈도가 적을수록 아동은 ‘급상승집단’보다 ‘급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즉, 어머니와 초기에 문해 상호작용을 자주 경험한 아동일수록 독서시간이 증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은 독서시간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질적인 문해 상호작용은 아동의 어휘력(정혜지·김지연, 2020; 최나야·노보람·최지수 외, 2021), 읽기 능력(Price & Kalil, 2018), 읽기 이해(정수정·최나야, 2012; Pfost & Heyne, 2023), 읽기 동기(정수정·최나야, 2012) 등 아동 전반적 읽기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을 해독하고 읽기 유창성이 증가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시기로(이순영, 2021; 정수정·최나야, 2012), 어머니의 명시적인 문해 지도는 아동의 읽기, 쓰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해력의 향상(Sénéchal, 2015; Sénéchal & LeFevre, 2002)으로 이어져 아동의 독서시간 증가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아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명시적 문해 지도

를 포함한 풍부한 문해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질적인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이나리, 2009; 정혜지·김지연, 2020; 최나야·노보람·최지수 외, 2021)의 중요성이 학령기 아동에게도 유효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버지가 자주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수록 ‘하위유지집단’과 ‘급상승집단’보다 ‘급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새로운 연구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아동의 독서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표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형선과 조희숙(2012)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와 그림책을 읽을 때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으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책의 본문만 읽어주며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거나, 아이가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하는 등, 아이에게 보다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특성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문해 상호작용 수준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부족함에도(권태민·전유영, 2014; 김명순·배선영·김지연, 2013; 정대현·신원애, 2011; 정형선·조희숙, 2012), 문해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어머니가 더욱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대현·신원애, 2011). 이를 통해 아버지와 자주 책을 읽는 아동의 독서시간 감소는,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는 행위의 빈도가 아닌, 아동이 한 명의 독자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효능감을 느끼도록 하여 독서에 몰입(이순영, 2006)하도록 돕는 상호작용 기술이나 전략 등 아버지의 질적 문해상호작용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권태민·전유영, 2014; Cutler, 2023; Steensel, Gouw, Liefers et al., 2022)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때의 학업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집단 간 학업수행능력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독서시간과 학업수행능력간의 관련성은 선행연구(박혜숙, 2008; 안영미·정익중, 2020; García-Madruga, Vila, Gómez-Veiga et al., 2014)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기에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은 아니나, 집단 간 수행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고 수치상의 지수로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학업수행능력은 ‘급상승집단’과 ‘상승후감소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하위유지집단’이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상승집단’은 ‘상승후감소집단’보다 2학년 시점의 독서시간은 적으나 3학년 때의 독서시간이 가장 많으며, 3학년에서의 학업수행능력은 ‘상승후감소집단’보다 높은 집단이다. 초등학교 3학년의 읽기 동기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정수정·최나야, 2017), 초등학교 3학년은 학업 수행 및 부모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높은 불안도를 보이는 시기이므로(곽금주, 1998; 김세영·은혜기, 2010), 2학년 시기에 독서시간이 증가하였더라도 3학년 시기에 충분한 독서시간을 갖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동의 독서시간은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안영미·정익중, 2020; 이정민·이강이, 2011), 본 결과는 학업수행능력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독서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독서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업수행능력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학령초기 독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후 아동이 독서시간을 늘려간다면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 아동의 독서시간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기에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가까이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독서시간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함으로써 독서의 양적인 부분만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문항 수는 2문항으로,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부모-자녀의 문해 상호작용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하고, 독서의 질적인 부분인 독서 상호작용, 독서량 등도 함께 살펴본다면 본 연구와 더불어 초등학생 독서 패턴과 관련된 다양하고 풍성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잠재집단의 사례수가 부족한 집단이 존재하였다.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1%의 기준(Jung & Wickrama, 2008; Nooner, Litrownik, Thompson et al., 2010)에는 충족하였으나,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은 집단이 존재하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업수행능력의 변화추이가 아닌 초등학교 3학년 시점의 학업수행능력만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수행능력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성장혼합분석(Growth Mixture Model)이나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전략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에서는 아동의 독서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정문해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어머

니가 책을 자주 읽어주는 아동일수록 학령초기인 1학년부터 독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여부에도 어머니의 초기 문해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부모들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23)과 북스타트코리아(2023)의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하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독후활동 및 독서 상호작용 지침도서(그림책사랑교사모임, 2023; 김도윤·안진수, 2021; 최나야·정수정, 2021)를 이용해 가정에서 양질의 언어적 자극과 풍부한 문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초기 문해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문해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지속해서 부모에게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Price & Kalil, 2018; Steensel, Gouw, Liefers et al., 2022), 이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교육청을 통하여 관련 정보와 교육을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학교에서는 학령초기 아동의 독서시간과 습관을 늘려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과정에서 독서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안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저학년 아동은 학령초기 독서시간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초기 독서시간이 낮은 집단이 이후 학업성취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이에 학령초기 아동이 독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령초기 높은 읽기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이후 마태효과(Matthew effect; Stanovich, Nathan, & Vala-Rossi, 1986)에 의해 읽기 능력이 더욱 강화되지만, 읽기부진 아동은 학년이 더해질수록 부진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읽기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아침독서, 독서동아리, 독후활동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환경이 필요함을 알려야 한다(김성준, 2014; 이지은, 2008; 장은미·윤준채, 2013). 더불어,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 외에도 도서관, 서점과 같은 독서 친화적 장소로의 방문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경민, 2004; 이상은·최나야, 2023).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청과 지역사회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양질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교육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해 혹은 독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책을 자주 읽어줄수록 아동의 독서시간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때 아동의 독서시간 감소는 아버지의 책 읽어주기 행위 자체보다는 적절한 상호작용 기술 부족과 부적절한 반응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권태민·전유영, 2014; 신승희·김명희·홍순옥, 2020). 권태민과 전유영의 연구(2014)에 따르면 대다수 아

버지는 독서가 아동에게 미치는 발달적 효과를 인지하였으나, 아동과의 독서 상호작용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고하였다. 나아가 아버지들은 자녀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도서 선정과 독서 후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대다수의 독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시점에서(최지수·최나야, 2022), 아버지-자녀 독서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독서지도 유능감과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선행연구(손승희·나종혜, 2018; 이문정, 2008; 이지혜 2016; Cutler, 2023)를 통해 아버지의 독서 상호작용에 대한 지도와 개입은 아버지-자녀 간 독서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자녀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뿐만 아니라, 어휘력, 읽기 이해력, 독서태도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으므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독서 부모교육은 아동의 독서시간 증가와 더불어 학업적 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금주(1998).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 연령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11.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23). (초등저학년) 사서추천도서. Retrieved July 14, 2023, from https://bookstart.org:8000/bbs/content.php?co_id=book_ele&cidx=6745&page=7
- 권태민·전유영(2014). 유아기 자녀의 독서활동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4), 409-438.
- 김경근·변수용(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7(1), 23-51.
- 김도윤·안진수(2021). 초등 독서수업 끝판왕: 독서 습관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즐거운 책 읽기. 서울: 교육과 실천.
- 김명순·배선영·김지연(2013). 영아-아버지 그림책 읽기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과 참여 실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277-297.
- 김성준(2014). 학생 독서능력에 대한 독서환경, 독서경험, 독서교육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51-71.
- 김세영·은혁기(2010). 초등학교 중학년용 불안 검사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초등상담연구*, 9(2), 195-215.
- 김아란·남민지·최영은(2021). 초등 4-6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실행기능과 독서 시간 및

- 선호도와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109-131.
- 김영식·김민석·이길재(2019).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고교생의 독서활동 예측 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8(4), 137-156.
- 김진숙(2008). 부모의 어린이도서관 이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이태상(2010). 초등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와 독서 특성 관련 변인 탐색. 교원교육, 26(6), 75-98.
- 그림책사랑교사모임(2023). 그림책 활동 100. 학교도서관저널.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11-1371000-000154-10
- 박혜숙(2008). 시간에 따른 중학생의 독서태도, 독서습관, 독서 시간과 국어성취도와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9(3), 27-49.
- 북스타트코리아(2023). (초등학생)을 위한 북스타트 꾸러미도서. Retrieved July 14, 2023, from https://bookstart.org:8000/bbs/content.php?co_id=book_ele&cidx=6745&page=7
- 손승희·나중혜(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관련 가정문해환경과 문해상호작용. 한국생활과학회지, 27(6), 421-433.
- 서우석(2007).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사회경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1), 273-302.
- 송유진(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5(3), 31-53.
- 송정숙·한승록(2007). 초등학생의 독서활동과 창의성 및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 교육연구, 21(1), 72-102.
- 송하나·최경숙(2010).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이 아동의 정서적 경험과 이야기 회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219-234.
- 신승희·김명희·홍순옥(2020).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가정에서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에 대한 아버지 인식 및 실천. 교육혁신연구, 30(1), 239-260.
- 안영미·정익중(2020). 초등학생의 사교육시간과 독서 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 습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2(2), 169-195.
- 여성가족부(2023. 5. 26).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5년 만에 감소. [보도자료].
- 오재민(2014). 선호도서 분야의 독서성향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 한국독서교육학회지, 2(1), 243-267.
- 육길나·김숙령(2009).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행동특성과 영아의 행동특성 및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9(5), 95-118.
- 이경민(2004). 초등학생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관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공공도서관의 학교

- 도서관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95-117.
- 이나리(2009). 아버지의 문해발달태도 및 가정문해활동과 유아의 어휘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정(2008). 가정에서 책읽어주기에 대한 아버지 인식 및 아버지 참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1-16.
- 이상은·최나아(2023). 학령초기 아동 어머니의 도서관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탐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233-261.
- 이선숙·김형균(2020).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변화 사례연구. 교육논총, 57(4), 50-74.
- 이순영(2006). 독서 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연구, 16, 359-381.
- 이순영(2021). 초등 자녀의 독서 실태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지원 양상 연구. 한국어문교육, 34, 7-42.
- 이유진(2021). 통합 파닉스 및 음운규칙 중재가 초등학교 저학년 난독증 아동의 단어 읽기 및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해·김명순·전혜정·이정림(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 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제3차년도 결과보고서. 서울: 삼성복지재단.
- 이정민·이강이(2011).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역량: 독서시간의 미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2(6), 1-13.
- 이지은(2008). 다독과 협동학습을 활용한 아동문학중심의 독서 동아리 지도방안.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2016). 아버지와 자녀의 함께 책 읽기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혁·송인한(2021). 여가시간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종단 연구: 고정효과모형 분석. 청소년학연구, 28(2), 323-351.
- 장근영·김기현(2009). 한국 청소년의 생활시간 국제비교와 라이프스타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39-155.
- 장은미·윤준채(2013). 아침 독서 활동의 성공 요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독서연구, 30, 397-418.
- 전춘애·최정희·황미경(2010). 부모-자녀 독서상호작용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가정과삶의질연구, 28(1), 119-130.
- 정대현·신원애(2011). 유아기 부모의 독서지도 인식 및 실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137-163.

- 정수정·최나야(2012). 만 5세 때의 가정문해환경과 독서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읽기 동기와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1(2), 193-223.
- 정수정·최나야(2017). 초등학생 읽기동기 척도 개발 연구. *초등교육연구*, 30(4), 151-187.
- 정행선·조희숙(2012). 그림책 읽어주기에서 나타난 부모의 상호작용 양상에 관한 연구. *교육혁신연구*, 22(3), 25-55.
- 정혜지·김지연(2020).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해 신념 및 문해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9(5), 575-588.
- 최나야·노보람·최지수·오탈성(2021). 가정의 독서환경 군집에 따른 유아 어휘력과 읽기 흥미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23-37.
- 최나야·정수정(2021). 초등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의 비밀. 서울: 로그인
- 최지수·최나야(2022). 그림책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3(3), 49-83.
- 편지애·최나야(2022). 아동의 독서시간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 어머니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0(2), 31-45.
- 하문선(2017).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종단적 변화와 가정환경,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 *청소년학연구*, 24(3), 25-59.
- 하여진(2023).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유형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독서시간의 매개효과 및 미디어 과의존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2. 12. 1).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주요 결과 발표. [보도자료].
- Bojczyk, K. E., Davis, A. E., & Rana, V. (2016). Mother-child interaction quality in shared book reading: Relation to child vocabulary and readiness to rea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6, 404-414.
- Chall, J. S. (1983).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 McGraw-Hill.
- Cutler, L. (2023). Parents' physically performative behaviors during shared book reading: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4, 129-138.
- García-Madruga, J. A., Vila, J. O., Gómez-Veiga, I., Duque, G., & Elosúa, M. R. (2014). Executive processes, reading comprehen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3th grade primary student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41-48.
- Hernandez, D. J. (2011). *Double jeopardy: How third-grade reading skills and poverty influence high school graduation*. Annie E. Casey Foundation.

- Huebner, A. J., & Mancini, J. A. (2003). Shaping structured out-of-school time use among youth: The effects of self, family, and friend syste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6), 453-463.
- Hume, L. E., Lonigan, C. J., & McQueen, J. D. (2015). Children's literacy interest and its relation to parents' literacy promoting practices.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38*(2), 172-193.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Nooner, K. B., Litrownik, A. J., Thompson, R., Margolis, B., English, D. J., Knight, E. D., & Roesch, S. (2010). Youth self-report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 latent class 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34*(3), pp.146-154.
- Pfost, M., & Heyne, N. (2023). Joint book reading, library visits and letter teaching in families: relations to parent education and children's reading behavior. *Reading and Writing, 36*(10), 1-21.
- Phillips, B., & Lonigan, C. (2009). Variations in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of Preschool Children: A Cluster Analytic Approach.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13*(2), 146-174.
- Price, J., & Kalil, A. (2019). The effect of mother-child reading time on children's reading skills: Evidence from natural within-family variation. *Child Development, 90*(6), e688-e702.
- Pruett, K. D. (2000). *Father need: Why father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The Free Press.
- Sénéchal, M. (2015). *Young children's home literacy*. In M. L. Kamil, P. D. Pearson, E. B. Moje, & P. P. Afflerbach (Eds.), *The Oxford handbook of reading* (pp. 275-288). Oxford University Press.
- Sénéchal, M., & LeFevre, J. A. (2002). Parental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reading skill: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1), 1-15.

73(2), 445-460.

Stanovich, K. E., Nathan, R. G., & Vala-Rossi, M. (1986).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cognitive correlates of reading ability and the developmental lag hypothesi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3) 267-283.

Steensel, R., Gouw, B., Liefers, S., & van Aspert, T. (2022). Cognitively challenging talk during shared reading: Effects of parent gender, child gender and relations with story comprehens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0(0) 1127-1148.

- 논문접수: 11월 6일 / 수정본 접수 12월 6일 / 게재 승인 12월 18일
- 교신저자: 편지애, 서울대학교 아동학 박사수료, jjae.pyun@snu.ac.kr

Abstract

Latent Profiles of Reading Time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Their Association with Academic Association and Parent-Child Literacy Interactions

Sang Eun Lee, Jiae Pyun, Naya Choi

This study aims to identify latent groups of reading time changes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identify predictors related to parent-child literacy interactions, and compar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levels based on reading time changes. The study used the eighth to ten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nd 496 dyads. First, the latent groups of reading time change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below average group," "average group," "high and then low group," "low and then increasing group," and "high and then decreasing group." Second, the more often a mother reads to her child, the more likely the child is to belong to the "average group" than the "below average group." The more frequently the mother guides her child's literacy skills, the more likely the child is belong to the "low and then increasing group" than the "below average group," "average group," and "high and then decreasing group." Finally, children in the "below average group" showed the lowest academic performance.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literacy interactions on children's reading time, and the level of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by the types of reading time changes.

Keyword: reading time, parent-child literacy interactions, academic achievement